

<서평>

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
 (Lynell Zogbo and Earnest R. Wendland, United Bible Societies, 2000)

장성길*

1. 들어가는 말

리넬 조그보(Lynell Zogbo)와 에른스트 벤트란트(Ernst R. Wendland)가 공저한 『성서 속의 히브리 시: 이해와 번역을 위한 안내서』(*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에서 성경 번역자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리즈로 기획하여 펴낸 책이다. 본서의 출간 목적은 제목과 부제가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예비 번역자들에게 수용 언어와의 관계에서 구약 히브리 시의 언어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데 있다. 벤트란트는 일찍이 히브리 시의 특성에 관심을 가졌고, 1994년에는 히브리 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논문집(*Discourse Perspectives on Hebrew Poetry in the Scripture*)을 출간하였다. 그 기초 위에 본서는 히브리 시에 관한 사전적 지식들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서의 진정한 가치는 히브리 시의 언어적 특성이 수용 언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수용 언어와의 조화 속에서 어떻게 히브리 시의 구조와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본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에 속하고, 2장은 히브리 시의 장르에 대해 약술한다. 3장은 본격적으로 히브리 시의 특성을 구조적 관점에서, 음성학적 관점에서, 문체상으로 그리고 단락 구분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4장은 3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수용 언어와의 관계에서 히브리 시의 장르와 문체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5장은 번역자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난제들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4장과 함께 번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번역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6장은 매우 이색적인 주제로 넘어가는데 번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고 서식체계를 갖출 것인가의 주제를 다룬다. 7장은 평행법과 교차 대구법이 히브리 시의 의미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헬라이어 본문을 어떤 원칙하에서 수용언어로 번역할 것인가의 복합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부록에는 번역과 관련한 4편의 소논문이 첨부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및 평가

2.1. 제1장: 히브리 시 번역하기

시(poetry)란 무엇인가? 오늘날 학자들 간에 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없다. 그렇다면, 시는 보편적인 것인가? 다시 질문하면 시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히브리어의 경우 시와 산문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시의 정의를 내리기는 더더욱 어렵다. 저자는 히브리 시의 특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 시의 속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본다. 가장 먼저 시와 산문체는 담화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시는 단순히 메시지(사실)를 전달하는 차원(무엇을 생각하는가?)을 넘어서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는 주제, 행, 또는 단어의 반복(repetition)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시에서는 비유적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운율과 리듬을 갖춘 작은 행들(lines)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히브리 시 번역자는 이러한 시어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본문을 번역하고 문장 성분들을 배열해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의 시와 산문체는 어떻게 다른가?

시와 산문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이다. 전자는 산문체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15장은 그 동일한 사건을 시로써 노래하는 본문이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에 기술하고 있는 산문체 내러티브와는 달리 서두에 배경 정보가 없으며, 시간적 흐름(chronological order)을 따라 사건이 기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5장의 발화 의도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4장의 사건을 기념하고, 되새기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히브리어 성경의 시와 산문체는 그 구조적 문체적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체는 히브리 시를 오늘의 수용 언어로 번역했을 때, 지금의 독자들이 고전적 형태의 시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TEV나 CEV 영역본은 과감히 시를 산문체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화자가 본래 표현하려고 의도하였던 시적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며,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간략하게 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며, 수용 언어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히브리 시의 장르에 대한 논의로 시작해 본다.

2.2. 제2장: 히브리 시의 장르

현재 우리는 히브리 시가 어떠한 문화와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 시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의하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음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은 시편은 본래 읽는 책이 아니라, 노래로 부르도록 의도된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시편은 수 세기에 걸쳐 수집된 노래집이라 할 수 있다.

시를 말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시(*psalms*)라는 하나의 범주를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장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장르라는 말은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구조 또는 내용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하나의 문학적 유형(*literary type*)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히브리 시에는 어떤 장르가 있을까? 불행히도 히브리 시에는 모든 장르를 한정할 수 있는 명확한 양식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편 속에 여러 양식들의 요소가 혼재해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 시에 시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노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쉬르(*shir*)가 있고(cf. 사 5장), 현악으로 협연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지니는 미즈모르(*mizmor*)가 쓰이고 있으며, 교훈적 시편을 일컫는 마스크일(*maskil*)이 있다. 그 외에도 탄식을 의미하는 키나(*qinah*)와 잠언을 가리키는 마샬(*mashal*)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시편 전체의 양식 체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던 헤르만 궁켈의 히브리 시의 양식 범주 체계를 소개한다. 궁켈은 시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비추어서 시편의 장르를 분류하였는데, 주요 양식으로 찬양, 감사 그리고 공동체적 탄식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시, 순례의 시와 지혜시를 이어지는 부수적 시편으로 따로 묶었다. 그러나 개별 시편의 명확한 범주 구분은 한계가 있으며 각 시편이 어떠한 삶의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따라서 개별 시편의 범주 구분에 대한 가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의 범주 구분은 매우 주관적이다.

2.3. 제3장: 히브리 시의 특징들

히브리 시의 특성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 차원- (1) 구조적 관점, (2) 음성학적 관점, (3) 수사적 관점, 그리고 (4) 문학적 단위에 대한 논의-에서 정의하고 있다. 저자 역시 이와 유사한 네 가지 범주 차원에서 히브리 시의 특성을 기술해 나간다.

먼저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평행법(parallelism), 단어의 쌍(word pairs), 교차 구조(chiastic structures), 인클루시오(inclusio) 그리고 후렴구(refrain)라는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히브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장치는 평행이다.¹⁾ 히브리 시는 대부분 두 행(lin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행이 다른 행과 문법적으로 또는 의미론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할 때 그 한 쌍의 행들을 평행법이라 부른다. 사실 평행법은 지난 수세기를 걸쳐오면서 연구되어온 시의 구조적 장치로써, 평행법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중엽 로우스(Lowth)가 제시한 분류 가설에서 출발한다. 로우스는 평행법의 범주를 동의적(synonymous), 반의적(antithetical) 그리고 종합적(synthetic) 평행법으로 구분하였다.²⁾ 그런

1)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서들을 참고하라: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 7-28;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20 (2007), 7-29;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Edinburgh: T. & T. Clark, 1985);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Dearborn: Dove Booksellers, 2008); T. Collins, *Line Forms in Hebrew Poet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S. Geller,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R.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Poetry* (Leiden: E. J. Brill, 1984);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2) 여기서 종합적 평행법[또는 점층적 평행법(stairstep parallelism)으로도 불린다]이란 첫 번째 행만으로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시행으로써 두 번째 행이 첨가되어 첫 번째 행의 사상을 완성시키거나 보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데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이러한 로우스의 분류가 지극히 단순하여, 히브리 시를 결정하는 유일한 시금석은 아니라고 비판한다.³⁾ 조그보와 벤드란트 역시 시행과 시행간의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개의 평행하는 시행들은 단순히 시행 반복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시행이 이어지는 시행과 ‘행위-결과’, ‘진술-설명’ 또는 ‘수단-목적’과 같은 논리적 연관성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역사 시편에서처럼 담론상에 기술되는 사건들의 시간적 순차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편 본문에는 변형된 평행 구조가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편 121:1-2의 경우 두 평행하는 시행들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적이다. 따라서 앞/뒤의 다른 행과의 관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히브리 시의 구조적 장치로써 교차 구조(chiastic structure)가 나타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변형된 평행구조라 말할 수 있다. 교차 구조란 두 개의 행들이 서로 상응하는 성분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abb'a* 또는 *abc-c'b'a* 구조이다). 셋째, 후렴구가 쓰이고 있으며, 넷째, 하나의 의미 단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 이 단락의 시작점과 끝에서 반복되는 인클루시오 현상이 나타난다.

히브리 시에서 소리의 효과: 강세, 운율, 리듬

히브리 시인들은 다양한 음성적 장치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리듬을 제외하고서 오늘날 번역 성경에 이러한 장치들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행 구조는 의미나 문법적 형태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또한 평행하는 행들은 리듬과 균형감을 덧붙여주는 규칙적인 소리의 강세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강세의 형태는 3+3 패턴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2+2, 4+4 또는 3+2, 4+3, 3+4 형태가 발견된다.⁴⁾ 또 다른 시의 특징으로 운율이 제시된다. 운율은 ‘하나의 절 안에서 규칙적인 리듬이 있는 소리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히브리 시에 나타나는 운율은 헬라의 시나 영어의 소네트에서 나타나는 엄격한 운율에 비하면 자유 운율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운율이 과연 히브리 시의 고유한 특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3) cf.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8), 3-7.

4) 히브리 시의 강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길링햄(Gillingham)의 *The Poems and Psalms of the Hebrew Bible*의 제 3장과 벌린(Berlin)의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의 5장을 참조하라. 길링햄에 따르면, 3:3 패턴은 찬양시의 핵심적 패턴이며, 3:2 패턴은 탄식시에 많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Gillingham, *Poems, and Psalms*, 64-66.).

그 외에도 히브리 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소리 장치로는 두운(alliteration), 유운(assonance), 각운(rhyme)이 있다. (1) 두운은 자음의 반복을 말하는데 의성어와 같다.⁵⁾ (2) 유운은 모음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히브리 시의 평행절에서 단락의 간극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3) 각운은 히브리 시의 보편적인 언어 장치는 아니며, 현대어로 번역할 때에도 표현이 까다로운 언어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유희(word play) 장치가 쓰인다. 히브리 시에서 언어유희는 단순히 유머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아이러니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장치이다.

히브리 문학에서 발견되는 문체적(stylistic) 특징들

네 번째 단락은 담화(speech)에 나타나는 문체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앞서 히브리 시의 음성적 장치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제임스 쿠겔(Kugel)을 중심으로 일부 학자들은 평행법과 인클루시오 그리고 두운법과 언어유희와 같은 언어 장치들은 실제로 산문체나 비시적(non-poetic) 본문에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직유와 은유, 제유와 의인법, 신인동성동형적 표현들과 수사적 질문 그리고 과장법과 아이러니, 풍자적 표현들과 인칭의 변화는 히브리어의 문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일련의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다. 그 이유는 평행 구조, 단어 병행, 후렴구, 수미상관과 같은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언어 장치들은 매우 규칙적이기 때문에 의도적 변화나 변경은 매우 큰 효과를 지니게 된다. 특히 인칭의 변화는 시인의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시의 단락 구분

히브리 시의 단락 구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조그보와 벤드란트는 시의 단위들로 스트로피(Strophe)와 스탄자(Stanza)를 제시한다.⁶⁾ 포켈만에 따르면 스트로피는 두세 개의 절들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하나의 사상을 형성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단위라고 정의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본서의 저자는 동질적 사상이나 의미 또는 구조로 결합된 시행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스탄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스트로피를 형성한다. 여기서 시적 단위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현대의 많은 역본들이 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전체의 단락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5) 실레로 애가의 서두는 *sh, m. l. r* 등의 음가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도서 1:6의 경우에는 마찰음인 *s, sh, f, v, ts, h*의 음가가 반복되고 있다.

6) 시의 문학적 단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okkelman의 *Reading Biblical Poetry* (2001)를 참조하라.

2.4. 제4장: 히브리 시 번역을 위한 지침들

서론

제4장은 히브리 시의 **장르**와 수용 언어의 **문체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저자의 의도는 앞서 제3장에서 다루었던 히브리 시의 특성을 재론하고자 함이 아니다. 히브리 시를 수용 언어로 번역할 때에 쉽게 접하게 되는 장르와 문체상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가치는 히브리 시의 고유한 장르와 문체가 수용 언어의 그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가이드하기 위함이다.

히브리 시의 유형들

단락 4.2.2에서 저자는 히브리 시의 양식(form) 범주가 수용 언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화(match)를 이룰 수 있으며,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7) 저자는 애가를 시작으로 사랑, 찬양, 잠언, 역사, 예언 그리고 지혜 순으로 간략하게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양식들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애가

세계 도처에는 애가라는 공통적인 장르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애가의 기능이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용 언어에서 애가의 기능과 히브리 시의 애가의 기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참고로 히브리 애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슬픔이지만, 후반부에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역자주). 히브리 시편에서 애가(lament)라는 장르는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의 차원에만 묶여있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게 묻어난다.

그런데 수용 언어에서 애가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기억할 것은 지역에 따라 애가를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먼저 히브리 시에 나오는 **개인 애가**와 수용 언어의 **개인 애가**의 기능이 서로 비슷한 경우이다. 일례로 사무엘하 1:19-27에 나타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삼하 1:19-27)는 아칸(Akan)족의 만가에 나오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만가와 그 기능이 거의 같다. 반면에 서아프리카에서는 애가라는 장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슬림(Muslim) 사회에서는 오로지 전문적인 말람(mallam)에 의해서만 애가시가 낭독되었다. 반면에 리베리아 해

7) 일반적으로 시편 주석가들은 시편의 중심 양식을 찬양, 애가, 그리고 감사로 분류한다.

안에 거주하는 크루(Kru)족의 경우, 장례식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통곡하는 전통 의식이 거행된다. 따라서 히브리 애가와 타 민족의 애가를 1:1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공동체 애가**는 히브리 성경 속에 특히 선지서(예레미야애가, 아모스, 그리고 에스겔서 등)에 많이 배열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노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시를 번역할 때 애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사랑송(love poetry)

특이한 것은 사랑송을 하나의 장르로 분류했다는 사실이다. (사랑송은 일반적인 시편분류 방식에서 쓰는 하위 범주는 아니다. 역자주). 사랑송을 독립된 장르로 거론하는 동기는 아가와 관련이 깊다. 아가에는 수용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다수의 복합적인 이미지들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사실상 아가에 나오는 사랑의 이미지들은 다른 나라들의 언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랑송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시적 장치이다. 화자는 사랑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은유나 직유와 같은 수사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 태양, 바람 또는 사슴에 비유하기도 한다.⁸⁾ 이러한 사실에서 저자는 아가에 나타나는 다양한 수사적 장치들이 수용 언어에서 사랑송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찬양시

찬양시는 시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의 장르 중의 하나이다. 찬양의 장르는 성경 외에도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문명권에서는 개인의 위대한 행동을 축하하기 위하여 찬양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공식 언어인 요르바어(Yoruba)는 다양한 신들에게 찬양을 함께 부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단인 유목민들이 쓰는 덩카(Dinka)어에서는 가축을 숭배하기도 한다. 그러나 히브리 시에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인애를 송축하기 위함이다.

잠언

잠언은 시적 표현인가? 서구 전통 문화에는 잠언을 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잠언은 시적 성향이 강하

8) 예를 들면 탄자니아의 니암웨지(Nyamwezi) 종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악기에 비유하여 노래하기도 한다.

다. 그 근거는 잠언의 구조가 대체적으로 평행절로 이루어져 있고, 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강세(stress)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잠언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 수용 언어를 쓰는 토착민의 잠언과 성경의 잠언이 서로 치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텍스트 간에 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히브리 잠언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 하나의 잠언이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자칫하면 히브리 원문에서 시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인위적으로 고안된 의미를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역사시(내러티브 시편)

역사시는 스토리를 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산문체와 매우 유사한 장르에 속한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역사시를 시의 하위 범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히브리 문학에서 역사시는 실제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시를 주시하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사건 그 자체를 보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시편 이외에도 창 2:23과 4:25의 경우를 보자. 본문의 구조는 마치 내러티브 속에 시(poetry)를 넣어둔 방식이다. 그런데 산문체 내에 시를 포함시킨 방식은 아프리카의 민간 설화에서 스토리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방식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내러티브 속에 첨부된 시적(poetic) 장치들을 어떠한 스타일로 번역해 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예언시

시와 산문체의 논의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아마도 예언서일 것이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예언서 본문은 산문체가 아닌 시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다(역자주). 그 이유는 본래 선지자들의 예언이 청중들에게 구술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 형식과 내용이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평행 구절이 예언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TEV 역본은 환상 본문을 산문체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FRCL 역본의 경우에는 시로 번역하고 있다. 그 외에도 NIV와 CEV 역본을 포함한 다수의 역본들은 본문에 따라서 시와 산문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서 본문들을 어떠한 문체로 번역할 것인가의 결단은 번역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지혜/교훈시

전도서와 욱기는 어떠한 문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전도서와 욱기는 본래 시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다. 특별히 욱기는 지혜 문학의 범주 내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며 애가와 찬양, 시적 혼계와 잠언이 포함되어 있다. 욱기 번역과 관련하여 필자의 관심은 수용 언어들 속에서 욱기에 나타나는 비슷한 시적 표현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⁹⁾ 그런데 만일 욱기의 문체를 대화체로 규정하게 되면, 본문은 간접화법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산문체 스타일에 가깝게 번역된다. 그러나 수용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적인 문체는 가능한 한 살려서 번역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문체적 조화(matches)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와 수용언어 간의 장르에 있어서 기능적 합일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단락 4.4에서는 앞서 제 3장에서 논의한 히브리 시의 문체적 특성에 기초하여 수용 언어에서 어떠한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의 조화

상기한 대로 히브리 시는 평행법, 교차 대구법, 인클루시오, 또는 후렴구와 같은 형식적 구조에 의해 구체화된다. 사실 이러한 성분들은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들이다. 먼저 평행법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수용언어와의 관계에서 문법적(grammatical) 평행과 역동적(dynamic) 평행을 용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문법적 평행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나마의 쿠나(Kuna) 사람들의 시를 보면, 평행하는 두 행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행에서 단지 한 단어만 다른 단어로 바뀐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알터(Alt)가 지적하였던 바, 의미를 강화하거나 구체화 시키고자 의도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교차 대구법(chiastic structure)은 수용 언어들 가운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구조적 장치는 아니다. 하지만 타갈로그의 잠언의 경우 a-b-b'-a'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좀 더 특별한 구조는 a-b와 b'-a' 사이에 다른 내용이 첨부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예를들면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의 Agni 전쟁의 노래).

9) 필리핀의 타갈로그(Tagalog)어의 경우, 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balagtasan*이라 불리는 장르가 존재한다.

소리의 효과

앞서 제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를 번역할 때 가장 표현해 내기 어려운 장치가 음성학적 장치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수용 언어의 시에서 두운, 유운 또는 각운 현상이 표현되는가를 주시해야 한다. 비록 히브리 시의 소리의 효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 언어에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개별 언어의 특성상 어떠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편 1:4에 대한 말라위의 치케와(chichewa) 번역본의 한 소절을 보면 두운과 유운 효과가 선명하게 표현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대위법적(point-counterpoint) 리듬 현상은 아프리카 서부의 부르키나파소의 무어(Moore)족의 노래에서 잘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각운 현상은 히브리 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기법인데, 다른 언어에서도 시의 핵심 장치는 아니다. 그러나 라틴어에서 유래한 로망스어(Romance languages)와 게르만어(Germanic languages)의 초기의 시에서는 각운이 시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언어유희(wordplay) 역시 번역어로 표현하기에 가장 어려운 기법에 속한다. 예외적으로 무어 번역 성경의 경우, 잠언에 나오는 언어유희를 잘 표현해 낼 수 있다. 만일 수용 언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유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언어유희 현상을 각주로 처리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

수사적 질문들

수사적 질문은 히브리 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체상의 특성이다. 상기한 대로 애가나 사랑 노래가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수사적 질문 또한 모든 언어에서 발견되는 문체상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수사적 질문을 수용 언어로 옮길 때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만약 수용 언어에서 ‘질문-대답’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시의 어조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번역자는 원문의 문체상의 특성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방식을 찾아야 한다.

비유적 언어들

상기한 대로 모든 언어는 은유나 직유 같은 비유 장치들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시는 좀 더 치밀한 비유적 장치들로 직조되어 있다. 그런데 토착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의 수사적 장치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번역자는 자신이 번역하려는 수용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장르의 시에서 이러한 비유 장치들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실제로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번역자들은 은유보다 직유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유는 직유보다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2.5. 제5장: 히브리 시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앞의 장들에서 저자는 시의 특성과 문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시를 번역할 때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저자는 특별히 평행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와 반복과 생략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듯이 히브리 시에 대한 번역의 문제는 문자적 번역이나 역동적 번역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저자는 시에 대해서 특별히 문자적 번역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시는 다중적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산문과 달리 시인이 단어와 구조의 선택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 번역은 시와 시인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기도 하다. 즉, 히브리 시의 평행법이라는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또한 성경 원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경에서의 빈도수나 신학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주의해서 번역할 것을 조언한다. 예컨대 성경 본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온-예루살렘**’과 같은 단어의 쌍은 원문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본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체데크**, **미쉬파트** 등의 신학적 용어는 번역할 때는 가급적 이들 각각에 대응하는 특정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히브리 시에서 주요 주제어이거나 특정 단락에서 핵심 용어일 경우에는 그러한 용어들을 변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또한 대응어의 자연스러움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원문에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번역에 대해 경계한다. 한편, 히브리 원어에 대한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히브리어를 음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해당 단어를 각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문에 대한 변형을 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와 시인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문을 변경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경우는 ‘단어 쌍’ 내의 단어 순서가 바뀌는 경우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불가피하게 히브리 시의 특정 단어를 번역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히브리 단어에 대응하는 대응어의 단어 선택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더 특수하게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 쌍을 이루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대응어에는 그 두 단어에 해당하는 공통의 한 단어밖에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시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반복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지만 단어 쌍의 두 단어가 첫 행과 둘째 행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는 경우, 평행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히브리 시의 단어가 대응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지만 평행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자는 해당 문화권에 맞는 단어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시인이 선택하는 단어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히브리 시의 특정 본문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였나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성경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인이 특정 ‘단어 쌍’ 내의 단어 순서를 관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 쌍’ 내의 단어들에 성경 전체에서 어떠한 순서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번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는 본 장에서 문자적 번역과 시의 구조를 유지하는 번역을 지향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그것들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여러 예를 들면서 다루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까지 시의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대목도 있어 보인다.

2.6. 제6장: 서식 체계(format)의 중요성

본 단락은 번역 작업이 완성된 후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배열하고 포맷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서식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간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예비 번역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히브리 시를 번역할 때에 어떠한 서식 체계를 갖출 것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강조

하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 시를 번역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번역본의 포맷 형태를 구상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번역자는 자신이 번역하려는 시의 가장 자연스런 서식 체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시를 산문체로 번역했다면, 히브리 시의 본래의 구조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때때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 형태가 희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히브리 시의 평행절이나 스탠자(Stanza)¹⁰⁾ 형식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독자들이 번역된 텍스트를 보고 시(poetry)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쇄된 부분의 서식 체계를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 현대어 번역 성경의 경우를 살펴보자. KJV와 Living Bible의 경우 모든 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처리하면서 좌우 행의 길이를 같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평행 구조가 인식될 수도 없고, 스탠자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NRSV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역본들에 비하면 시 형식을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은 있으나, 동시에 심각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2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충분한 여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행을 시작할 때에는 들여쓰기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문의 시행 구조가 어색하게 변해버렸고, 평행 구조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NRSV의 이러한 약점을 좀더 보완하였다고 평가되는 역본이 CEV 역본과 God's Word 역본이다. 두 역본을 살펴보면, 일단 각 연(strophe)의 구분이 분명하고, 원문의 평행 구조가 분명해서 본문을 읽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장르가 혼합된 텍스트의 경우

성경 텍스트를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와 산문체가 혼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선지서이다. 이러한 책들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흐름이 바뀌거나 단락의 고유한 문체가 바뀌었을 때, 그 단락의 스타일과 기능에 맞는 서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전도서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TEV와 REB, 그리고 FRCL 역본의 일치된 현상은 히브리 원문의 문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본문을 일괄적으로 산문체로 번역하고 있다. 그 결과 독자들이 전도서의 본래의 문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것에 비하면 NIV는 시 부분을 들여쓰기로 표현하였고, 평행 구조를 선명하게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산문체 부분

10) 포켓만에 따르면, 스탠자의 길이는 둘 혹은 셋 이상의 연(Strophe)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과 분리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히브리 시 원문의 포맷 이해하기: 역으로 현대어 번역본들의 서식 체계에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표기들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과 절의 구분이다.

구두점: 현대어에는 마침표, 콤마, 세미콜론 등의 다양한 구두점들이 쓰인다. 기억할 것은 구두점들은 독서의 열쇠라는 것이다. 특히 시를 낭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히브리 시의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다. 문제는 구두점들이 많으면 독서 과정에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써 일단 시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구두점을 테스트 하라고 조언한다.

정리하면, 저자는 시 형식(form)은 그 시의 총체적 의미(meaning)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 말은 시가 어떠한 서식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시가 앞으로 어떻게 읽혀지고, 해석될 것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히브리 시의 다양한 서식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행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연(stanza)을 구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평행 구조를 따라 시행을 배열해야 한다.

2.7. 제7장: 시의 구조가 의미 결정에 미치는 영향

히브리 시에 시적 특성을 부여하는 평행이라는 요소와 교차 대구법은 히브리 시의 핵심적인 구조적 장치이다. 본 단락은 히브리 시의 구조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난해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한다. 만일 어떠한 본문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단락이 어떤 구조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가 3:9-11을 예로 들어보자. 10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이 갑자기 언급되는데, 10절 내에서는 그것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구조를 따라 교차 배열법(chiastic structure)을 적용하면 11절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성을 아는 것은 분명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으로 교차 배열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면 오역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예는 시 105:6에 대한 TEV의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8. 제8장: 신약 본문의 배경에서 구약의 시를 번역하기

마지막으로 신약 본문이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을 때, 번역자는 어떤 원리에서 번역 작업을 수행해야 할까?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였을 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경(LXX)을 자주 인용했다는 사실이다. 예레미야 31:15를 인용하고 있는 마가복음 1:2-3을 예로 들어보자.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마가복음 저자가 기반 문서로 히브리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칠십인경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어떤 책을 기준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신약 헬라어 본문을 채택하고 그 본문을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기초해서 그 본문을 수정해서 번역해야 하는가?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신명기 6:13을 인용하고 있는 마 4:10의 경우인데, 신약 성경 저자는 칠십인경에 더 추가한 것처럼 보인다. 위의 두 가지 용례에 대하여, 조그보와 벤드란트는 오늘의 번역자가 신약 저자의 생각을 따라 헬라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들어 있는 구약 인용문들을 번역할 때 번역자가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유혹이 있는데 신약 저자의 요점을 좀 더 명백하게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이처럼 구약 본문을 기독교화(christianizing)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그리고 구약 본문이 신약 저자에 의해 인용된 내용 그대로를 번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9. 부록

부록에는 총 4편의 소논문들이 첨부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히브리 시(사 5:1-7)를 수용 언어(아프리카어)의 구조적 체계를 따라 번역하고, 왜 그렇게 번역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서두에서 호프(Edward Hope)는 히브리 시와 아프리카 시를 비교했을 때, 문체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한다. 호프의 번역은 매우 실험적 성격이 강한데, 핵심은 히브리 원문의 강조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아프리카의 리듬과 운율에 맞게 본문을 번역해 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가 구상하는 것은 단순히 히브리 시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시를 노래로 부르도록 하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로렌 블리즈(Loren Bliese)¹¹⁾의 소논문은 히브리 시에 관심 있는

11) 로렌 블리즈 목사님은 문맹국민 에티오피아 20개 이상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였다(역자주).

에비 번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번역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저자가 아파르(Afar)의 시인 무하마드 씨와 함께 시편 23편을 직접 에티오피아(Ethiopia)의 아파르어로 번역하고, 자신의 번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저자는 특히 히브리 시의 운율과 평행법을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산문체가 아닌 시를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번역에 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르 족이 문맹사회이기 때문에 구두 매체(oral medium)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블리즈의 번역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형식적 동등성과 의미의 동등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문 역시 히브리 시를 수용언어로 번역하기 전에 번역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루이스 돈(Dorn)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번역 컨설턴트로서 히브리 시를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 번역하였다. 타갈로그어의 시(poetic)의 특징은 시라는 범주 속에 잠언, 수수께끼, 발라그타산(Balagasan) 그리고 도게렐(Doggerel)이라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타갈로그어와 히브리어 간에 문체상의 유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평행법(parallelism)과 교차 배열법(chiasmus)이 타갈로그어에 쓰이는 하지만, 히브리 시에서의 기능과는 다르며, 또한 타갈로그 시의 핵심 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교차 배열법을 쓰고 있는 본문은 독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시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지막 논문은 성공회 캐논 길레스 윌리엄스(Giles Williams)가 소개하는 히브리 시를 키냐르완다(Kinyarwanda)어로 번역하는 데 따르는 지침들이다. 키냐르완다는 르완다에 사는 반투족의 언어이다. 윌리엄스는 나이다의 기능적 역동성(functional equivalence) 원리를 수용하여 히브리 시를 키냐르완다어로 번역하였다. 저자가 중시하는 것은 특히 문체적 특성인데, 수용 언어에서 어떻게 히브리 시의 운율과 평행법 그리고 종속 접속사와 접속어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3. 평가

본서는 마치 히브리 시를 번역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장치들을 한 권의 책에 엮어 놓은 매뉴얼과도 같다. 따라서 수용 언어로 히브리 시를 번역할 때에 요청되는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충

실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 번역을 준비하는 예비 번역자들에게 필독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둘째, 이 책은 번역 이론만을 짜깁기 해 놓은 책이 아니라 실제로 저자들이 아프리카 언어들과 필리핀의 토착어로 히브리 시를 번역하면서 경험한 지식들을 토대로 히브리 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히브리 시의 구조와 문체적 특성과 수용 언어의 구조와 문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의 속성을 균형 있게 파악하고 있어야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전체 주제의 배열과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잘 전개시키고 있다. 즉, 히브리 시의 특성에 대한 논의(3장)에서 출발하여 번역해야 할 수용 언어와의 관계성을 다루고(4-6장), 마지막으로 신약의 구약 인용의 문제(8장)를 다루는 방식으로 배열하고 있다. 저자의 관점에 있어서 수용 언어 중심에서 번역을 시도하는 부록의 논문도 소개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히브리 시의 구조적, 문체적, 그리고 수사적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번역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넷째, 저자의 관점을 분석해보면, 수용 언어의 구조와 문체에 대해 이해하는 만큼 히브리 시의 본래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점이 지적된다. 첫째, 상술한 대로 매뉴얼과 같은 방식으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속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제3장의 경우, 히브리 시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실제로 시편 개론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수용 언어로써 제시되고 있는 현대 번역 용례들이 일부 아프리카 언어와 필리핀 언어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본서에 인용되고 있는 영역본의 경우에도 CEV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많으며 RSV와 NIV 역본이 인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직역 중심의 번역 성경(예, YLT)이 함께 비교되었다면 좀 더 풍성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히브리 시의 특성으로 구조와 문체상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히브리 시의 동사체계와 그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본서가 번역본들에 대한 단순 비교서가 아닌 번역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원문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다. 사실 저자가 여러 번에 걸쳐 번역자가 재창조적인 번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서 두 행으로 되어 있었던 원

문을 두 행 그대로 번역한 역본보다 한 행으로 축약하여 번역한 번역본이 시인의 의도를 더 잘 살렸다고 평가했던 것은 오히려 원문의 형태를 보전하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 과제는 오히려 번역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히브리 시의 번역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서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 주보와 벤투란트의 야심찬 본서의 기획은 미완이지만 독자들에게 히브리 시의 구조와 장르와 문체에 대해 생각할 기회와 통찰력을 부여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히브리어 성경의 시와 산문체, 시적 특성, 문체적 특성과 조화, 평행법.

Bible Translation, Biblical Hebrew poetry and prose, poetic features, stylistic features and matches, parallelism.

(투고 일자: 2012. 2. 22, 심사 일자: 2012. 3. 2, 게재 확정 일자: 2012. 3. 2)

**Book Review-*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

(Lynell Zogbo and Earnst R. Wendlan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0)

Assistant Prof. Sung-Gil Jang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paper reviews Lynell Zogbo and Earnst R. Wendland's monograph entitled, *Hebrew Poetry in the Bible*, which is published by United Bible Societie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tures of Hebrew poetry and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poetry in target languages. In contrast to prose, poetry presents information in a compact, non-linear manner. On the one hand, Hebrew poetry is characterized by the formal structure, including many types of parallelism, chiasmic structures, inclusios and refrains. On the other hand, stylistic features of Hebrew poetry can be described by figures of speech and sound effects as well. It means that the first step of translating Hebrew poetry is to identify the diverse poetic devices, that can be divided by the structural and stylistic features. In this respect, the span of this monograph extends from the features of Hebrew poetry (chs. 3-5) to the complex problems in translating Old Testament poetry, which is quoted in the context of the New Testament (ch. 8).

After reviewing the life setting, genres, and principal features of Hebrew poetry in chapters 2 and 3, Zogbo and Wendland devote the next chapter to the major question: 'What features of Hebrew poetry should we attempt to preserve in the translation?' The goal of this chapter is to appropriately translate Hebrew poetry in poetic form in the target language. Thus, the translator should know well what poetic devices exist in the target language. In Chapter 6, the authors further develop ideas on poetic devices of biblical Hebrew as means to solving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poetry. This chapter discusses a number of difficult problems in word choice, and the translation of key terms and difficult metaphors. Throughout the passages, the authors make the point that in contemporary languages, translated poetic text should be well-organized and well-formatted in order to make the characteristics of biblical Hebrew poetry understandable to readers.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this monograph can help translators who begin their mission in the field of Bible translation. I may fully agree to the authors' argumentation that the essential content and function of the original text must be preserved, and that translators should not transform biblical poetry into today's images. We have to be careful to keep what is in the original text.